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Strategic Insight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영향

- OBBB 법안 통과 과정에서 찾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
-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방향성 고려한 업종별 대응 전략 구축 필요
- 투자 아이디어: XLK, ROBO, CIBR, XLI, ARKX 등

미국 전략 Note

2025. 7. 4

OBBB 법안에서 찾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이하 OBBB 법안)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방향성이 구체화됐다. OBBB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4가지다. 1) 미국인의 세금 감면, 2) 취약 계층의 복지 프로그램 개혁, 3)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 4) 부담스러운 정부 규제 완화다.

과도한 정부 지출 축소 위한 정책은 지속 예상

현재 미국 연방 부채는 36.2조달러로 GDP의 121% 수준이며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35년에는 59.2조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의 134.8%에 해당한다. 미국 연방 부채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지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이자 비용은 2,520억달러로 GDP의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지출되는 군사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국 국세수입 증가에도 과도한 지출이 연간 적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금번 법안 논의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OBBB 법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출을 줄이고, 이자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OBBB 법안 논의에서 찾는 정책 수혜/피해 업종

트럼프 행정부는 OBBB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의료 보험, 고령층/근로자/신생아 지원, 감세, 친환경, 국경 강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주로 강조〈표 1~2〉했다. 전체 S&P500 지수는 감세 법안 통과 이외에도 상호 관세 유예 여부와 각국과의 관세 협상 방향성, 고용 지표, 실적 눈높이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다. 방산, 인프라/제조업 관련 부문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긍정적, 혼재, 부정적 영향이 반영될 업체들을 선별할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은 1) 산업재/인프라, 2) 방산/우주항공, 3) 보안이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혼재될 산업은 1) 금융, 2) 소비재, 3) 에너지 업종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반영될 업종은 헬스케어와 청정에너지다.

최보원
bochoi@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아이디어: 트럼프 행정부 지출 방향성 + 산업 성장성 고려 필요

2025년 상반기는 관세 발표 방향성에 따라 미국 주요 지수의 등락이 반복됐다. 반면 하반기에는 관세 이외의 정책과 산업별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 상반기 대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됐고, 일시적 조정 후 반등이 컸던 만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숫자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증가 및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고, 산업의 성장 여력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해당 업체로는 산업재/제조업/로봇 관련 업체와 AI/전력에너지, 보안, 우주항공 업체 등이 있다. 감세안에 따른 투자/소비 개선 시에는 중소형 기업들의 상승 여력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업종/기업은 캐터필라(CAT), 로크웰(ROK), AEP(AEP), 팔로알토(PANW) 등〈그림 1〉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방향성과 산업 성장성을 고려해 주목해야 하는 ETF는 XLI, RSHO, ROBO, BOTZ, NLR, URA 등〈그림 2〉이 있다.

<표 1> 항목별 부채 축소/증대 계획

항목	부채 축소/증대 규모(2025~2034 년)
농업	2,300 억달러 이상 축소
군사비용	1,440 억달러 이상 증가
교육/인력	3,300 억달러 축소
에너지/상거래	8,800 억달러 축소
금융서비스	50 억달러 축소
국토안보부	670 억달러 증가
사법부	1,100 억달러 증가
천연자원	10 억달러 이상 축소
감독/정부 개혁	510 억달러 축소
교육/인프라	370 억달러 축소
방법/수단	45 억달러 증가

자료: 미국 의회예산처(CBO), 백악관(White House), 한국투자증권

<표 2> 트럼프 행정부 지출 증가/축소 방향성 점검

항목	주요 내역
의료 보험 지원 요건 강화	저소득층 대상의 메디케이드 가입 요건 강화 근로 가능 연령(19~64 세)는 매월 80 시간 이상의 근로/교육/자원봉사 필요 가입 자격 재심사 주기 단축. 최대 35 달러의 본인 부담금 신설 의료 보험 가입자 수 축소, 의료 서비스 이용 고객 축소 가능성 부각
오바다 케어 절차 강화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의 소득 확인 절차 강화 자동 재가입 제도 폐지 의료 보험 가입자 수 축소, 의료 서비스 이용 고객 축소 가능성 부각
고령층/근로자 대상의 세금 혜택	고령층 대상으로 표준공제를 6,000 달러 추가 적용 일시적 세금 혜택 제공 팁/초과근무 수당 근로자의 소득세 일부 공제
신생아 지원	2025~2028 년 신생아 대상의 1,000 달러 출산 계좌(트럼프 계좌) 지급 부모는 매년 최대 5,000 달러 추가 납입 가능
감세 계획 지속	2017 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감세 조항을 영구화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 확대 등 감세 혜택의 60%가 상위 20% 고소득층에 집중
이민자/학생 지원 축소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일부 이민자의 복지 자격 박탈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AC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전기차/친환경 지원 축소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달러 환급하던 세액공제를 2025 년 9 월 종료 풍력, 태양광 세제 혜택은 2027 년 종료
푸드스탬프 근로 요건 강화	푸드스탬프(SNAP) 근로 요건 강화 기존 대비 수급 연령 상향 퇴역 군인, 노숙자, 보호종료 아동 등도 근로 증빙 필요 푸드스탬프 비용과 행정비용 일부를 주별로 직접 부담 필요 프로그램 축소/탈퇴 가능성 확대
국경 강화	국경 장벽 건설 위한 재정 확보 이민세관 단속국 및 관세청 등의 국경 보안 인력 증원 이주민 추방 및 국경 장벽 건설 위한 예산 배정
국방비 증가	국방비 증액 규모는 1,570 억달러 군함 건조, 우주 미사일 방어망(골든 돔 등) 구축
항공/우주 산업 강화	항공 관제 시스템 개편 우주 상업화, 우주 군사력 강화 필요성은 강조

자료: 미국 의회예산처(CBO), 백악관(White House), 한국투자증권

<표 3>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피해 업종

구분	업종	영향
긍정적	산업재/인프라	이민자 지원 정책 축소에 따른 생산인구 축소 부담 확대 예상 반면 세금 혜택 및 지원 확보 위한 일부 근로 활동 증가는 기대 인력 및 공급망 부담 제한적인 환경 위한 산업 자동화 시설 구축 필요
	방산/우주항공	국방비 증가, 무인 항공 산업 강화 등에 따른 산업 성장 기대 미국 자국 기술/장비 활용 필요성 높아지고 있는 점도 관련 기업 주목 이유
	보안	정부 지출 증가 및 기술 강화 필요성 부각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기업 실적 개선 예상
혼재	금융	세금 부담 완화에 따른 기업/개인 대출 증가 기대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부담 확대 가능성도 부각
	소비재	감세 법안 지속 및 일부 소득세 부담 완화에 따른 소비 개선 기대 일부는 부채 한도 증액 조치도 공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출 부담도 가중 예상
	에너지	친환경 지원 축소에 따른 전통 에너지 기업 부각 반면 경기 불확실성 확대, 공급 확대에 따른 원유 가격 구조적 상승은 제한적
부정적	헬스케어	의료 보험자수 축소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 영향 반영 예상 의료 산업 내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 제약 산업 내 관세 불확실성, 규제 강화, 경쟁 지속되는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진입 부담 낮은 만큼 기술적 반등은 예상되나, 구조적 회복까지는 시간 걸릴 전망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 투자 세액공제 축소 중국과 연계된 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추가 과세 방안도 강조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투자 아이디어(중장기 성장 여력+규제 완화 기대감+대표 기업 실적)

구분		관련주/ETF
M	Manufacturing, 제조업체	캐터필라(CAT), 파커-하니핀(PH), 패스널(FAST), 로크웰 오토메이션(ROK) 등
A	AI 관련 산업 및 전력인프라	알파벳(GOOGL), 브로드컴(AVGO), 서비스나우(NOW), 팔란티어(PLTR), 트레인테크놀로지스(TT) 등
R	Robot, 로봇/자동화	인튜이티브 서지컬(ISRG), 보스턴 사이언티픽(BSX), 테라다인(TER), 지브라(ZBRA) 등
S	Small Cap, 스몰캡	IWM, IJR, VBK 등
S	SMR, 소형모듈원전	GE 베르노바(GEV), 컨스텔레이션에너지(CEG), AEP(AEP), 카메코(CCJ), 뉴스케일파워(SMR) 등
S	Security, 보안	팔로알토 네트웍스(PANW), 포티넷(FTNT), 인포시스(INFY), Zscaler(ZS) 등
S	Space/Defense, 우주항공	RTX(RTX), 제너럴 다이내믹스(GD), L3해리스(LHX), 크라토스 디펜스&시큐리티(KTOS) 등

주: 하반기 전망(25/5/29, 각양각색, 화성(MARS)과 위성(SSS) 자료 참고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하반기 주목 테마 및 투자 아이디어(ETF)

	구분	관련 ETF
M	Manufacturing, 제조업체	XLI, RSHO
A	AI 관련 산업 및 전력인프라	XLK, XLC, IGF, XLU
R	Robot, 로봇/자동화	ROBO, BOTZ
S	Small Cap, 스몰캡	IWM, IJR, VBK
S	SMR, 소형모듈원전	NLR, URA
S	Security, 보안	CIBR, HACK
S	Space/Defense, 우주항공	SHLD, ITA, PPA, ARKX

자료: 한국투자증권

Appendix #1. 미국 주요 지수 및 업종 수익률

<표 4> 미국 주요 지수 수익률

(단위: pt, %, 배)

구분	종가	수익률				EPS 변화		12MF	PER 변화	
		1W	1M	3M	YTD	1M	3M	PER	1M	3M
미국 주요 지수										
다우	44,828.5	3.3	5.4	10.6	5.4	1.0	(0.3)	20.9	0.9	2.0
S&P500	6,279.4	2.3	5.2	16.4	6.8	1.5	1.4	22.3	0.8	2.9
나스닥	20,601.1	2.1	6.2	24.5	6.7	(155.4)	(156.1)	-	-	-
나스닥100	22,867.0	1.9	5.6	23.5	8.8	1.8	2.0	27.1	1.0	4.7
러셀2000	2,249.0	3.5	6.9	17.7	0.8	(0.5)	(2.5)	27.1	1.9	4.7
러셀3000	3,573.2	2.3	5.3	16.7	6.4	1.2	0.8	22.5	0.9	3.1
필라델피아	5,647.1	1.9	13.8	45.0	13.4	4.9	5.3	24.7	1.9	6.8
스타일										
성장주	4,477.4	2.0	5.7	24.5	9.3	1.6	4.1	27.1	0.8	4.2
가치주	1,960.9	2.6	4.6	8.3	4.0	1.4	(0.6)	18.5	0.6	1.5
중소형성장	1,490.6	2.5	5.8	19.9	1.4	(2.6)	(2.7)	40.3	3.2	7.6
중소형가치	2,473.0	4.6	8.1	15.5	0.3	(0.3)	(3.7)	20.1	1.6	3.3

주: 7/3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5> 미국 S&P500 및 러셀2000 업종별 수익률

(단위: pt, %, 배)

구분	종가	비중	수익률				12MF
			1W	1M	3M	YTD	PER
S&P500							
IT	5,036.7	30.6	2.5	8.7	32.5	9.3	29.0
커뮤니케이션	376.0	13.8	1.4	6.8	22.4	10.1	19.3
금융	885.2	13.9	2.7	4.4	11.5	10.0	16.9
경기소비재	1,783.7	10.3	2.6	3.4	17.3	(2.6)	27.3
헬스케어	1,580.8	8.8	1.0	2.2	(5.3)	(1.5)	16.9
산업재	1,264.4	8.0	2.8	4.2	18.6	13.3	21.8
필수소비재	905.6	5.8	2.0	(1.3)	0.6	6.1	20.4
에너지	666.6	2.9	1.6	5.2	0.1	1.8	13.9
유틸리티	415.7	2.1	0.9	(0.1)	3.6	8.0	17.3
부동산	262.6	1.9	2.0	0.7	2.4	2.6	34.9
소재	576.3	1.8	3.8	4.3	9.8	8.8	18.5
러셀 2000							
IT	7,241.6	14.1	4.4	9.8	35.2	(0.0)	30.2
커뮤니케이션	1,757.0	3.5	5.2	24.2	30.3	14.2	-
금융	2,462.0	19.2	4.6	9.0	16.7	4.7	16.5
경기소비재	4,024.8	10.5	5.2	6.8	20.6	(3.1)	14.4
헬스케어	3,915.5	15.6	0.7	2.4	9.5	(4.5)	-
산업재	3,863.2	16.7	3.6	8.5	23.7	5.8	19.8
필수소비재	4,063.6	2.7	4.9	0.3	2.0	1.4	19.3
에너지	264.8	5.5	4.6	7.6	16.0	(9.6)	14.5
유틸리티	2,131.3	2.8	1.1	1.1	2.3	5.9	13.0
부동산	1,009.5	5.5	1.7	3.4	3.2	(5.0)	53.3
소재	3,856.0	3.9	4.9	8.2	26.4	11.8	16.3

주: 7/3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2. 미국 업종별 대표 기업

<표 6> S&P500 업종별 대표 기업 수익률 및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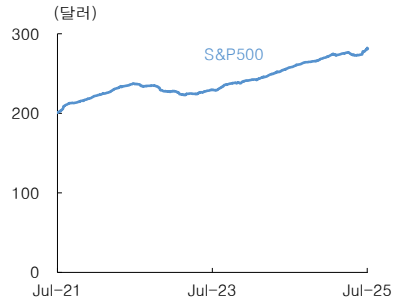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달러, %, 배)

업종	종목명	시가총액	종가	수익률				12MF
				1W	1M	3M	YTD	PER
IT								
1	엔비디아	3,836.9	159.3	2.8	12.8	56.5	18.7	32.3
2	마이크로소프트	3,650.0	498.8	0.3	7.7	33.7	18.3	32.8
3	애플	3,173.0	213.6	6.2	5.1	5.1	(14.7)	28.3
4	브로드컴	1,269.5	275.2	1.9	7.1	78.7	18.7	35.7
5	오라클	646.0	237.3	11.5	40.3	72.9	42.4	34.3
커뮤니케이션								
1	알파벳	2,174.4	179.5	3.5	8.0	19.1	(5.2)	15.8
2	메타 플랫폼스	1,794.1	719.0	(1.0)	7.8	35.2	22.8	21.7
3	넷플릭스	546.8	1,297.2	(0.7)	6.5	41.5	45.5	44.2
4	T-모바일 US	269.6	240.8	4.0	(1.3)	(10.1)	9.1	20.5
5	월트디즈니	221.1	124.0	2.1	9.2	39.6	11.4	20.1
금융								
1	버크셔 해서웨이	1,036.4	485.0	(0.0)	(2.6)	(8.5)	7.0	24.3
2	제이피모간체이스	811.5	296.0	2.5	11.2	29.4	23.5	15.5
3	비자	702.1	358.9	3.7	(1.9)	5.7	13.5	28.9
4	마스터카드	509.9	569.2	4.3	(2.2)	7.3	8.1	32.9
5	뱅크오브아메리카	366.9	48.9	3.1	9.6	31.5	11.3	12.4
경기소비재								
1	아마존 닷컴	2,334.7	223.4	2.9	8.6	25.2	1.8	27.5
2	테슬라	1,016.7	315.4	(3.2)	(8.4)	18.0	(21.9)	135.0
3	홈디포	370.0	371.7	2.3	(0.4)	4.4	(4.4)	23.9
4	맥도날드	210.7	294.1	3.0	(5.9)	(7.6)	1.4	23.0
5	부킹 홀딩스	185.5	5,716.8	2.2	4.4	28.5	15.1	24.7
헬스케어								
1	일라이 릴리	738.6	780.7	(1.8)	4.0	(1.1)	1.1	30.4
2	존슨앤드존슨	374.3	156.0	2.6	1.0	(2.4)	7.9	14.4
3	애브비	336.9	189.3	1.3	1.1	(6.1)	6.5	14.5
4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279.0	308.6	2.0	2.4	(42.9)	(39.0)	13.0
5	애보트 래버러토리	233.3	134.4	0.6	0.5	2.1	18.9	24.8
산업재								
1	제너럴 일렉트릭	261.0	246.9	(1.6)	(0.8)	31.6	48.0	40.8
2	RTX	193.1	145.8	2.2	6.0	11.9	26.0	22.9
3	우버 테크놀로지스	192.5	93.6	0.5	13.4	34.0	55.2	24.8
4	캐터필러	187.4	397.9	4.2	13.9	30.1	9.7	20.0
5	보잉	159.9	215.9	6.6	1.2	43.1	22.0	205.3
필수소비재								
1	월마트	779.0	98.4	2.4	(1.6)	12.7	8.9	36.0
2	코스트코 홀세일	435.7	987.0	0.4	(6.5)	2.1	7.7	50.0
3	프록터 앤 갬블	377.9	160.8	1.4	(3.6)	(6.7)	(4.1)	23.0
4	코카콜라	305.2	71.4	2.7	0.3	(2.5)	14.6	23.1
5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273.8	178.9	(1.0)	(1.9)	10.4	48.6	22.7
에너지								
1	엑손 모빌	478.6	112.2	2.0	8.1	(0.2)	4.3	15.8
2	쉐브론	258.4	148.4	2.7	6.3	(5.0)	2.4	16.9
3	코노코필립스	119.2	93.7	3.1	6.6	(1.6)	(5.5)	14.3
4	윌리엄스 컴퍼니스	72.2	58.6	(6.7)	(4.0)	(0.7)	8.4	26.0
5	EOG 리소시스	67.1	123.2	1.7	9.2	2.7	0.5	11.9
유틸리티								
1	넥스트에라 에너지	150.3	73.9	4.1	4.1	2.4	3.1	19.5
2	서던 컴퍼니	100.3	91.5	1.3	2.1	(1.1)	11.2	20.6
3	Constellation Energy Corp	96.6	311.9	(3.3)	(0.4)	63.9	39.4	29.9
4	듀크 에너지	91.0	117.3	0.9	0.5	(5.4)	8.9	18.0
5	비스트라	63.5	192.2	0.9	9.2	77.6	39.4	27.2
부동산								
1	아메리칸 타워	104.3	221.8	1.9	3.9	(2.8)	20.9	33.4
2	프로로지스	102.8	108.0	3.5	(0.9)	6.3	2.2	27.4
3	웰타워	98.6	152.8	(0.5)	0.4	0.2	21.2	71.3
4	이퀴닉스	77.8	787.0	5.6	(12.1)	(1.8)	(16.5)	52.4
5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59.1	172.6	1.8	(0.7)	22.3	(2.7)	108.3
소재								
1	린데	224.6	475.6	2.4	0.8	1.8	13.6	27.6
2	셔윈-윌리엄즈	88.3	354.0	3.5	(1.1)	3.9	4.1	28.1
3	에코랩	77.2	274.1	4.1	3.3	9.5	17.0	34.4
4	뉴몬트	66.8	59.9	1.2	8.2	23.9	60.9	12.8
5	프리포트 맥모란	65.7	45.8	3.0	13.8	36.7	20.3	23.8

주: 7/3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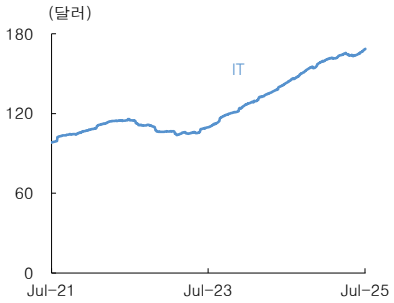
Appendix #3. 지수 업종별 12MF EPS 변화

[그림 3] S&P500 EPS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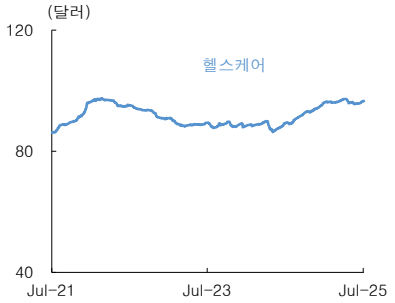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IT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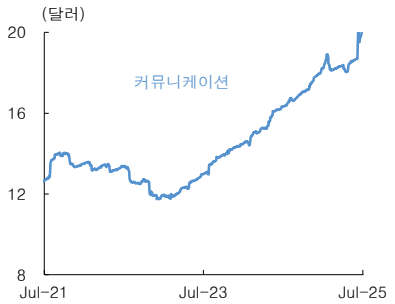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헬스케어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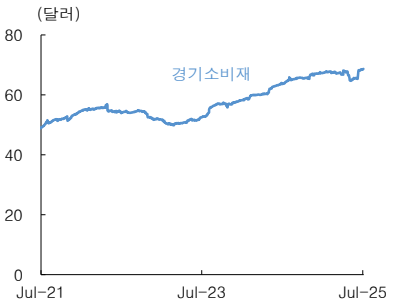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커뮤니케이션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경기소비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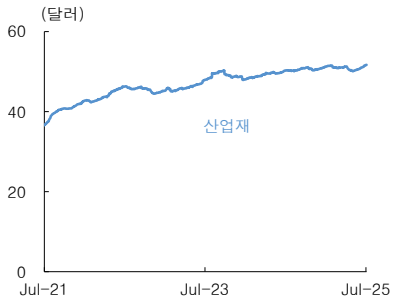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금융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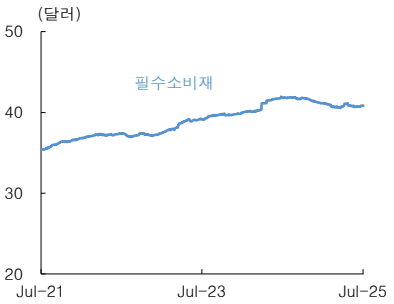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산업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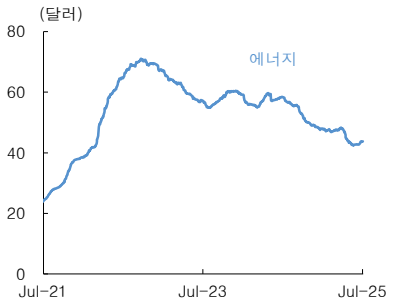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필수소비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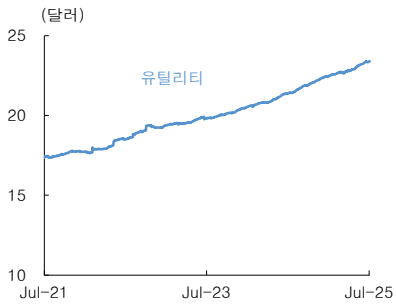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에너지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유틸리티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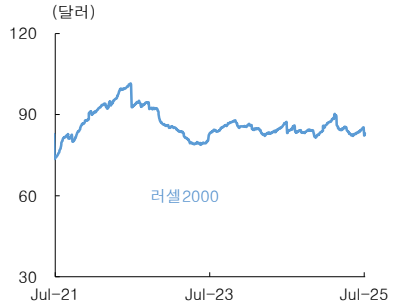
[그림 13] 부동산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소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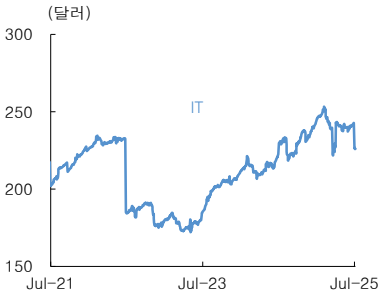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러셀2000 EPS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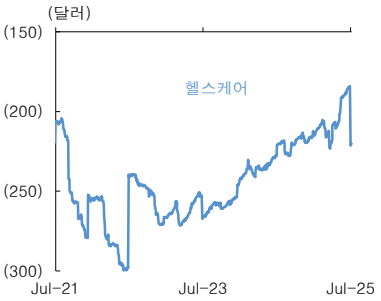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IT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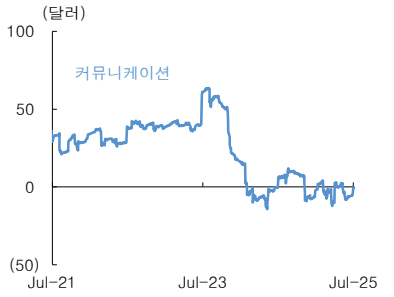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헬스케어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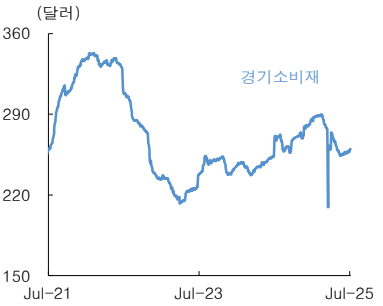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커뮤니케이션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경기소비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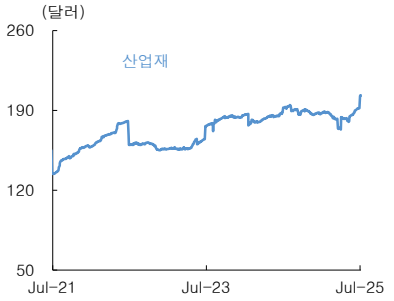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금융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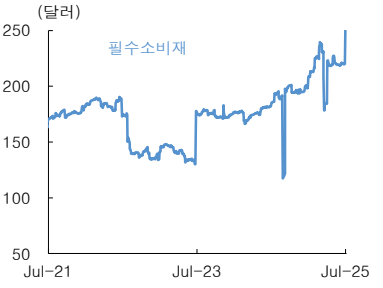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1] 산업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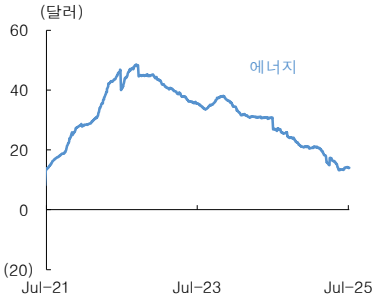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2] 필수소비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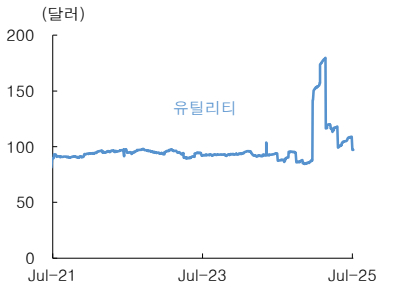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에너지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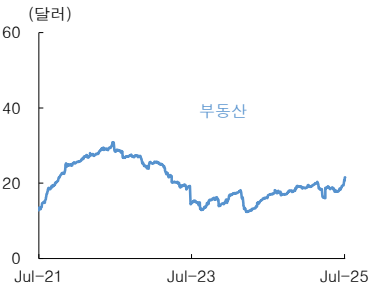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유틸리티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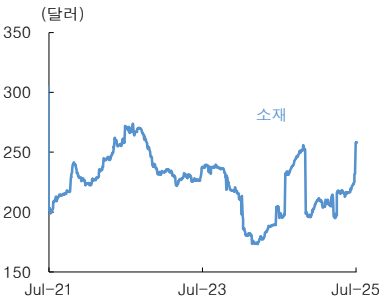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5] 부동산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6] 소재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4. 주식형 ETF 수익률

<표 7> 지역/국가별 ETF

(단위: 백만달러, %)

지역	세부 지역	티커	ETF명	AUM	수익률		
					1M	3M	6M
전세계	전체	ACWI	iShares MSCI ACWI ETF	22,325.1	4.0	8.6	9.5
	미국제외	ACWX	iShares MSCI ACWI ex US ETF	6,462.0	2.3	10.5	17.0
선진국	전체	URTH	iShares MSCI World ETF	5,008.3	3.6	7.9	8.8
	미국제외	IXUS	iShares Core MSCI Total International Stock ETF	46,267.9	2.5	11.4	17.2
	미국제외	VEA	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	164,311.4	2.5	11.2	19.2
	EAFE	IEFA	iShares Core MSCI EAFE ETF	142,967.9	0.9	9.4	18.6
선진유럽	유럽	VGK	Vanguard FTSE Europe ETF	26,154.3	1.2	9.3	22.5
	유럽	IEV	iShares Europe ETF	2,294.8	0.3	7.8	21.5
	유로존	EZU	iShares MSCI Eurozone ETF	8,158.9	0.8	11.4	27.1
	영국	EWU	iShares MSCI United Kingdom ETF	3,041.2	(0.6)	6.4	17.2
	독일	EWG	iShares MSCI Germany ETF	2,861.9	0.2	13.6	33.3
	프랑스	EWQ	iShares MSCI France ETF	433.3	0.6	6.7	21.9
	스웨덴	EWD	iShares MSCI Sweden ETF	375.9	0.9	3.9	20.5
	이탈리아	EWI	iShares MSCI Italy ETF	543.4	0.7	16.7	35.2
	스페인	EWP	iShares MSCI Spain ETF	1,336.8	3.2	22.8	43.0
선진아시아	일본	EWJ	iShares MSCI Japan ETF	15,223.5	0.6	7.8	10.9
	아시아태평양(일본제외)	EPP	iShares MSCI Pacific ex Japan ETF	1,910.1	1.5	11.6	12.3
	호주	EWA	iShares MSCI Australia ETF	1,616.4	1.6	10.6	9.4
신흥국	전체	VWO	Vanguard FTSE Emerging Markets ETF	92,327.3	5.4	12.9	13.3
	전체	IEMG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96,790.1	5.9	14.4	15.2
신흥아시아	중국	MCHI	iShares MSCI China ETF	6,382.7	1.8	3.6	18.0
	타이완	EWT	iShares MSCI Taiwan ETF	6,302.5	11.8	18.3	13.8
	인도	INDA	iShares MSCI India ETF	10,060.0	3.4	16.7	4.5
	한국	EWY	iShares MSCI South Korea ETF	4,872.5	17.5	33.8	37.6
	인도	INDY	iShares India 50 ETF	719.4	2.9	15.3	5.8
	태국	THD	iShares MSCI Thailand ETF	201.5	(2.9)	(1.2)	(12.3)
	인도네시아	EIDO	iShares MSCI Indonesia ETF	239.9	(5.2)	4.9	(8.0)
	말레이시아	EWM	iShares MSCI Malaysia ETF	230.8	1.3	4.3	0.3
신흥유럽	터키	TUR	iShares MSCI Turkey ETF	168.2	7.1	(5.5)	(10.8)
	폴란드	EPOL	iShares MSCI Poland ETF	479.7	9.7	27.8	54.5

주: 7/3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8> 스타일별 ETF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세부 구분	티커	ETF명	AUM	수익률		
					1M	3M	6M
사이즈	대형	SPY	SPDR S&P500 ETF Trust	636,482.3	4.9	7.1	5.6
	중소형	IWM	iShares Russell 2000 ETF	66,165.6	6.7	6.8	(0.6)
스타일	성장(대형)	VUG	Vanguard Growth ETF	175,186.9	5.4	11.7	6.1
	성장(대형)	IVW	iShares S&P 500 Growth ETF	60,399.9	5.4	12.4	7.3
	성장(러셀1000)	IWF	iShares Russell 1000 Growth ETF	111,285.9	5.8	11.3	5.2
	가치(대형)	VTV	Vanguard Value ETF	140,980.6	4.1	1.8	5.4
	가치(러셀1000)	IWD	iShares Russell 1000 Value ETF	62,718.4	3.9	2.6	5.8
	가치(중소형)	VBR	Vanguard Small-Cap Value ETF	30,389.6	5.8	4.2	1.1
	배당	VIG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93,820.7	3.9	3.3	5.9
	배당	VYM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62,226.3	4.1	2.3	5.8
	저변동성	USMV	iShares MSCI USA Min Vol Factor ETF	23,773.9	0.5	(0.3)	5.7
	저변동성	SPLV	Invesco S&P 500 Low Volatility ETF	7,671.7	(0.2)	(2.5)	4.5
	퀄리티	QUAL	iShares MSCI USA Quality Factor ETF	53,206.3	3.4	3.3	3.2
	멀티팩터	LRGF	iShares US Equity Factor ETF	2,617.8	4.7	7.1	6.2
	모멘텀	MTUM	iShares MSCI USA Momentum Factor ETF	17,601.0	2.2	11.7	13.3

주: 7/3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9> 업종별 ETF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업종	티커	ETF명	AUM	수익률		
					1M	3M	6M
미국 업종별	IT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80,369.9	8.7	17.5	9.0
	금융	XLF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50,556.3	4.1	2.8	9.5
	헬스케어	XLV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34,554.8	1.9	(9.4)	(2.5)
	에너지	XLE	Energy Select Sector SPDR Fund	27,646.2	4.1	(0.9)	(0.5)
	커뮤니케이션	XLC	Communication Services Select Sector SPDR Fund	23,990.5	6.3	7.0	10.4
	경기소비재	XLY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Fund	22,816.7	2.7	4.4	(2.1)
	산업재	XLI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Fund	22,128.9	4.0	11.2	12.6
	유틸리티	XLU	Utilities Select Sector SPDR Fund	18,968.7	(0.7)	3.2	6.2
	필수소비재	XLP	Consumer Staples Select Sector SPDR Fund	16,030.1	(0.7)	(1.6)	4.9
	부동산	XLRE	Real Estate Select Sector SPDR Fund	7,490.7	0.4	(4.0)	2.4
	소재	XLB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Fund	5,621.0	4.1	5.0	9.8

주: GICS 기준의 11개 업종 기준, AUM 순, 7/3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7월 4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